

Angela M. Crack,
Global Communication and Transnational Public Spheres,
(New York: Palgrave Macmillan, 2008)

발제: 김 상 배

o Angela M. Crack

- Lecturer at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, Liverpool, UK
- 2004년 자신의 박사논문을 발전시킨 책

o 하버마스의 공론장(公論場, public sphere)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적용 시도 - 제1장

- 지구화의 양면적 전망 - 지배와 해방의 가능성 - 신자유주의는 지배엘리트를 위한 물질자원에 초점 - 초국적 대화와 문화간 교류, 풀뿌리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항의 기회를 촉진 --> 이러한 과정에서 ICT는 pivotal role을 담당 --> 국제정치학은 이러한 변화에 둔감
- 이러한 양면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? 이러한 변증법적 긴장관계를 하버마스의 체계(system)와 생활세계(lifeworld)의 구분으로 인식
- 글로벌 미디어, 정치적 권위의 소재(所在), 글로벌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 필요 --> 기술적, 정치적,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부상하는 '초국적 공론장(transnational public sphere)'의 부상?
-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국제정치에 적용하는 문제는 기존의 연구가 소홀히 한 부분 -->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의 발달로 그 계기가 마련되었음
- 필자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재구성(reconstruction)하여 적용

o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 - 제2장

- *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* (1999, 원저 1962) --> 18세기 영국의 부르주아 공론장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
- 근대 초기의 부르주아 공론장의 부상과 쇠퇴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의는 '국가권력의 합리화에 대한 규범적 관심'에 의해서 촉발되었음 --> '국민국가의 민주적 결핍'을 비판적으로 보는 수단으로서의 그의 논의
- 하버마스에 의하면 특정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공론(公論)이 정치체(polity)의 조직에 효과적으로 inform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는 것
- 하버마스의 공론장 논의는 초기에는 historicist, 후기에는 discourse ethics에 영향을 받은 추상적 논의 --> 이 책은 전자의 영향을 받음
- 하버마스의 개념은 영토적 경계 안에 있는 국지적/국가적 맥락에서 본 공론장을 논함 (state-centric perspective) --> i) 국가주권과의 관계 속에서의 국민적 시민권 (national citizenry)와 ii) national 미디어로서의 인쇄 미디어에 기반
- 또한 부르주아 공론장에 주목하는 하버마스의 논의에 대한 비판도
- 여성이나 노동자계급, 급진적 소수자 등과 같은 당시의 대항적 공중(counterpublics)

의 존재를 무시함

- 인위적인 공(public)과 사(private)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-->젠더 문제, 경제적 부정의, 성적 성향(sexual preference) 등을 배제시키고 있다
- 하버마스의 이론에 대한 다양한 변용을 야기함
-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하버마스 이론의 reformulated 버전을 제시 --> 국민국가가 아닌 지구화 세팅, 인쇄미디어가 아닌 글로벌 미디어의 관점에서 개작
- 커피숍과 인쇄미디어를 넘어서 사이버살롱(cyber-salons)과 디지털 기술
- 지구화의 진전과 ICT의 발달은 공론장의 위상과 구조에 대한 연구 질문들을 제기함
- ICT는 초국적 민주적 대화를 위한 충분한 담론공간을 제공하는가? 주권적 권력의 소재로서의 국민국가의 위상이 쇠퇴하는가?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숙의의 형태를 띠는 초국경적 시민 네트워크의 부상을 발견할 수 있는가?

o 대안적 프레임워크로서 필자가 제시하는 ‘초국적 공론장’의 이론 - 제3장

- 최근 ICT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--> 국민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론장의 확대 가능성을 논하게 함 --> 시공간을 초월하여 초국적으로 숙의(熟議, deliberation)하는 공중(公衆, public)의 부상 --> 초국적 공론장의 부상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의 출현
- 그런데 공론장 이론을 적용하려는 기존 논의는 너무 서술적인 차원에서만 공론장 이론을 수용하거나 친(親) 국가적인 맥락(통치 제도에 우호적인 숙의적 행위)에서 공론장을 이해하는 문제가 있음
- 따라서 공론장 논의를 탈정치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론장 이론이 추구하는, ‘풀뿌리 정치적 동원의 포럼’으로서의 ‘해방의 관심’을 부정할 우려가 있음
- 초국적 공론장의 정의 --> 비국가 행위자들의 ‘공공성의 규범(the norm of publicity)’에 의거해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에 도달케 하는 숙의의 장(site)
- 여기서 ‘공공성의 규범’에는 몇 가지 필요조건이 있음 --> a)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관련 행위자들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논쟁이 이루어져야 함 (즉, nominal equity), b) 논쟁은 일정한 원칙(intelligible한 참여,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이성적인 정당화 등)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, c)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주장
- 이러한 정의는 비국가 기반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발생하는 ‘다양성’을 인정할 정도로 유연해야 하며, ‘다수의 공간이 존재’함을 인정해야 함
- 초국적 공론장 vs. 글로벌 시민사회
- 시민사회(civil society)와 공론장(public sphere) 개념의 구별 --> 시민사회는 비국가 행위자 및 조직을 의미; 공론장은 시민사회 행위자들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의 장소를 의미
- 초국적 공론장의 부상에 구조적 전제조건을 제공하는 세 가지 경향: i) 국경을 넘나드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, ii) 정치적 권위의 소재(所在) 변동, iii) 상호친화성(mutual affinity)의 초국적 네트워크
- 그런데 이들 세 범주마다 각각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야 함: i) 자유롭고 개방된 미디어, ii) 신뢰할만하고 공론을 수용하는 거버넌스 구조, iii) 기본적인 숙의의 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사회 제도 등

- 만약에 이들 세 가지 조건들이 적절히 수렴할 때 초국적 네트워크는 의미 있는 대화를 생성할 수 있음
- o 정보시대의 국경을 넘는 의사소통 능력 증대 - 제4장
- ICT 중에서도 뉴미디어, 특히 인터넷의 잠재력에 주목 --> 그 범위나 구조 및 커뮤니케이션의 속도라는 관점에서 기성의 매스미디어와 질적으로 다름
 - interactive 하고 탈집중화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 -->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와 미디어 시장의 denationalization 발생 --> 일종의 hyper-networked 사회의 출현
 - ICT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정치적 동원의 기회를 증진시킴 - 새로운 기술이 갖는 해방적 잠재력
 - 물론 커뮤니케이션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가 자동적으로 초국적 공론장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음
 - 확대되는 참여와 언론의 자유가 국가권력과 기업권력의 지속되는 침투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음
 -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논리가 공공성을 침해(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왜곡 효과)
 -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억압적 국가의 존재 - 국가의 감시와 검열 정책 --> 표현의 자유 침해
 - 미디어 기술에 대한 접근과 소유의 불평등(정보격차)도 위협요인임
 - 교육, 소득의 차이 - 인종적, 사회적, 성적 차별 --> 특히 남북간의 정보격차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인 국제적 대화를 가로막는 요인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은 국경을 넘는 정치적 agency의 가능성을 보여줌
- o 정치적 권위의 소재(所在) 변동 - 제5장
- 통상적인 공론장 이론은 국민국가를 공공대화의 장으로 상정하고 있음
 -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하는 구조가 국가 주권에 가하는 도전이 증가함
 -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층위적이고 국지적, 지역적, 초국가적(supranational) 범위를 포괄함 - 다양한 행위자가 관여 - 국가, 지역정부, 국제기구, TNCs, NGOs, 법원, 민간/공공 규제기구 등
 - 정치적 공론장 내에서의 숙의가 이러한 ‘거버넌스의 양식’과 관련된다는 인식 --> 즉 거버넌스의 양식과 citizenry의 담론적 결합에 주목
 -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는 세계정치에서 국민국가 중심의 통상적인 가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 --> 따라서 정치적 권위의 글로벌 아키텍처의 변화는 공론장의 숙의에 대한 ‘국가주의적(statist) 전체’에 대한 의문을 제기
 - 지구화에 따른 국민국가의 역할 변화 --> 국제법의 증가와 국민정체성의 상대적 쇠퇴
 - 이러한 변화는 국제체제를 무정부상태(anarchy)로 보는 기본의 개념을 무색케 함 --> 좀 더 다층위화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매트릭스로 이해 cf. 네트워크아키
 - 글로벌 거버넌스는 초국적 이슈들의 해결을 위한 통제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규칙, 레짐, 규범의 총체
 - 그렇지만 이것이 국가의 완전한 후퇴나 ‘중심의 부재’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--> 여전히 국가가 가장 영향력있는 노드 - 그렇지만 글로벌 거버넌스 하에서 다른 행위자

- 들에 공개된 투입요인이 국가에 영향을 미침
-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이 초국적 공공성의 대안적 통로가 될 수 있음

o 상호친화성(mutual affinity)의 초국적 네트워크 - 제6장

- 초국적 네트워크란?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소통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ICT를 사용하는 시민사회의 그룹
- ‘숙의의 규범(deliberative norms)’은 대화자들이 민주적 담론을 통해서 생성된 공론의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함
- 그런데 공론장에서의 이러한 규범은 대화자들 간의 최소한의 의미에서 본 공통성(commonality), 즉 필자의 표현으로 상호친화성(mutual affinity)에 의존함 -->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합리적 주장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 할 것임
 - 필자는 Dalgren의 affinity 에 대한 논의를 원용하여 친근함(affinity)라는 말을, “시민들이 포용적 담론(inclusive discourse)의 도덕적-정치적 효용성을 인정한다”는 최소한의 의미로 사용 --> 다시 말해 공론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상대방과 견해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암묵적 믿음과 권위는 공론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도덕적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 --> 이러한 가치들은 ‘공공성의 규범’이 담론에 체화되었을 때 드러남
- 친화성(affinity)란 무엇인가?
 -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필요에 대한 상호 인정(reciprocal recognition)인데, 이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귀결
 - 이러한 상호친화성의 감(感)은 ‘public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이 출현하는 조건을 생성
- 통상적인 의미의 공론장에서는 national citizenship이 이러한 상호친화성을 창출함 --> 그리하여 공공성의 규범을 공동인정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제공함
 - 그런데 최근에는 수많은 글로벌 사회운동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의미있는 유대(solidarity)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남 --> ICT는 ‘버추얼 네트워크’를 제공함으로써 다양성을 연결하고 사회적 결합을 위한 조건을 제공
 - ‘imagined virtual community’의 부상 --> ‘공공(public)’으로서 네트워크를 보는 관주관성이 존재함
- 컴퓨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(CMC)에 기반을 둔 초국적 공론장에서 비판적 공공성의 부상을 가로막는 요인들은 많음
 - a) 지리적 분산성, b) 공통의 시민권(citizenship)의 부재, c) 인터넷 담론을 특징짓는 커뮤니케이션의 익명성 문제 등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‘분절된’ 것 같은 대항적 공중(counterpublic)들이 광범위한 시민적 삶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있다
- 또한 버추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초국적 행동주의(activism)가 계속 발흥 --> 이는 기성 정치정당의 부진과 크게 대비됨
- 이러한 초국적 네트워크의 사례로 필자는 세 가지 사례에 주목
 - i) 국제 여성 운동 --> 젠더적 경험에 기반을 둔 상호친화성의 감각
 - ii) 싸파티스타 운동 -->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반지구화의 상호친화성

- iii) 그린피스의 환경운동 --> 생태계에 대한 상호친화성
 - 이들 공론장은 비판의 장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환의 기원이 됨 --> 패권적 담론에 대한 영향과 함께 국제제도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침
 - 이는 21세기의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‘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적 결핍 (democratic deficit)’에 대한 힌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
- o 초국적 공론장 이론의 향후 연구주제 - 제7장
 - 부상하는 공중의 속성과 초국적 속의의 성격에 대한 탐구가 필요 --> 초국적 비판적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 --> 이러한 요인들은 본문에서 언급한 구조적 전제조건과 관련하여 세 가지 범주로 정리 가능
 - a) 정보시대의 국경을 넘는 의사소통 능력 증대 관련
 - 글로벌 정보격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 - 새로운 기술의 추구가 기존의 정보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 등등
 - b) 정치적 권위의 소재(所在) 변동 관련
 - 민주적 결핍의 문제,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적 신뢰성 증대 문제, 다자간 제도의 효용성 문제, 국가를 바이패스하는 NGOs와 activist 네트워크의 공공성 문제 등등
 - c) 상호친화성의 초국적 네트워크 관련
 - 결속의 정도가 다른 네트워크들을 구별할 필요 등
 - 하버마스가 말하는 weak public(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는 직접적 권한이 없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private persons)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
 - Nancy Fraser가 말하는 strong public(국가 내의 public, 즉 sovereign national parliaments)에 대한 연구도 필요
 - 즉 여론형성에만 관여하는 weak public vs. 실제로 권위적 행동을 하는 strong public의 구별과 전환의 문제
 - James Bohman은 이러한 weak public과 strong public의 구분을 초국적 속의에 적용